

북야공파 청석문중 운곡서원 참배

북야공파 판서공계 청석문중(靑石門中 都有司: 權奇浩36世) 종원 50여명은 지난 9월 8일(토) 안동에서는 관공버스 1대, 대구와 포항에서는 승용차로 각각 출발하여 11시경 경주시 강동면 왕산리 310에 소재한 운곡서원에 도착하여 시조 태사공(太師公), 죽림선생(諱: 山海19世), 귀봉선생(諱: 德麟 23世)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경덕사(景德祠)에서 성배(誠拜)하고 서원유사(書院有司)로 부터 운곡서원(雲谷書院) 사적(事蹟)과 배향되어 있는 선조님의 업적과 죽림(竹林) 선생이 신원되어 12세손 갈산(葛山: 宗潑)이 죽림선생(竹林先生)의 복작교지(復爵敎旨)를 봉수(奉受)하여 오는 길에 영주시 순흥면 금성산(錦城壇) 옆에 있는 은향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심은 은향나무(암각수: 鴨脚樹: 경주시 보호수 11-15-16)의 유래를 들었다. 서원경내 보수관계로 일행은 유연정(悠然亭: 1811년 지어진 유연(悠然)은 도연명(陶淵明)의 채곡시(采菊詩)에서 취했음)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포항 호미곶으로 향했다. 일행은 호미곶 해맞이공원에 도착하여 새천년기념관 안에 있는 화석박물관을 관람하고 공원 곳곳을 둘러보고 시내 죽도시장 회센타에서 회정식을 들면서 청석문중 기파조이신 사정공(諱: 玠18世)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정공(同正 公1416-1477)의 자는 가옥(可玉)이고 아버지는 황성현감을 지내신 계경(啓經)이시며, 아버지는 중남장을 지내신 후(厚)이시고, 증조는 판서공계 계파조이시며 고려흥부 갑인년



에 문과장원을 하시고 봉악대부로 예조판서를 역임하신 인(訥)이시다. 기타 현안사항을 논의하며 화기애애 분위기 속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포항운하 크루즈를 타고 1시간여 운하관광을 마치고, 안동에 도착한 일행은 정상동 만다린정식에서 생선구이정식을 먹으면서 앞으로 모든 종원은 문중의 대소사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합하고 단결하여 문중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하루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북야공파총회사무국장 권오익>

로 단체사진을 찍고 포항 호미곶으로 향했다. 일행은 호미곶 해맞이공원에 도착하여 새천년기념관 안에 있는 화석박물관을 관람하고 공원 곳곳을 둘러보고 시내 죽도시장 회센타에서 회정식을 들면서 청석문중 기파조이신 사정공(諱: 玠18世)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정공(同正 公1416-1477)의 자는 가옥(可玉)이고 아버지는 황성현감을 지내신 계경(啓經)이시며, 아버지는 중남장을 지내신 후(厚)이시고, 증조는 판서공계 계파조이시며 고려흥부 갑인년

부산종친회 부회장단 간담회 개최

부산종친회(회장 權英鎬)는 지난 9월 11일 저녁 전포동 종친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과 부회장단이 함께한 간담회를 열었다. 모두 34인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는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태사공에 대한 망배를 시작으로 참석 인사 소개, 회장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7월초 임원회의 후 첫 모임인데 그 동안 111년 만의 무더위 잘 날리고 모두 건강할 얼굴로 대하게 되어 무척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해 준데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여러분의 동참과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김상 명예회장은 새삼스럽지만 지난 8년 간 종친회장 재임 시 신세를 진 부회장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부회장들의 협조와 도움이 오늘의 종친회를 있게 했다는 치하와 함께 내년도 체육대회의 중책을 맡아 준 갑수 대회장, 영호 후원회장, 도영 준비위원장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오는 회의에서 종사와 체육대회에 대한 허심탄회한 조언과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격려사를 하였다.

이어서 김상 명예회장은 새삼스럽지만 지난 8년 간 종친회장 재임 시 신세를 진 부회장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부회장들의 협조와 도움이 오늘의 종친회를 있게 했다는 치하와 함께 내년도 체육대회의 중책을 맡아 준 갑수 대회장, 영호 후원회장, 도영 준비위원장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오는 회의에서 종사와 체육대회에 대한 허심탄회한 조언과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격려사를 하였다.

도록 결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러한 토의에서는 주관 단체를 청년회로 정하고, 종친회도 후원단체로서 체육대회에 일정액의 성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대회 결과에 대해서는 청년회가 종친회의 감사를 받아 투명성을 확보하

이어서 음식점으로 옮겨 진행된 만찬에서는 식사와 함께 개인별로 찬조할 성금 약정도 받았는데 현장에서 이미 약속된 금액을 포함, 6천만 원이 넘는 기금을 받는 등 이날부터 2019년 전국체육대회 성금 모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만찬 마무리에 영호 회장은 "오늘 결심을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 기필코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종친회를 사랑하는 뜻 있는 종친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액 기금 내역: 영호 후원회장 2천만 원, 갑수 대회장 2천만 원, 부산종친회 1천만 원, 장년회 5백만 원, 도영 준비위원장 5백만 원, 영문 변호사 3백만 원 등>
<부산종친회 사무국장 권재영>

정조공파 14번째 경로잔치 개최



경로잔치에 참석한 종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조공파총회(正朝公派宗會: 회장. 권인택)는 9월 14일 오전 11시 안동시 옥정동 안동회관 2층에서 권기만, 권오탁, 권기룡 등 역대 정조공파 회장과 원로회원, 종원(宗員)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조공파 14번째 경로잔치>를 개최하였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는 이날 오전까지 계속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종원들이 참석하자 주최 측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동종친회 사무국장, 김철수 자유한국당 안동시 사무국장 등이다.

이날 이회준 안동MBC 리포터가 사회를 맡아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등을 진행하였다. 권인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여름은 111년만에 찾아온 폭염 때문에 지내시느라 큰 고생을 하였고"고 위로하고 "또 지난 6.13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동권문 45명 중 일부 시장과 의원들이 안동에 도착, 시조묘소를 참배하는 등 권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올해 정조공파에서 추진한 일들을 열거했는데 첫째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송조사상이 투철한 대학생 23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천1백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둘째 종원들에게 보화강좌를 실시하였다. 셋째 파조 단소 맞은편에 선조인 권정평(權正平)의 묘지명(墓誌銘)을 세웠으며 마지막 네 번째는 안동시 옥동에 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인택 회장

물을 신축, 임대를 하는 등 상세히 설명하였다.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경로잔치 분위기를 보니 마치 가족처럼 오순도순 정담게 정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다"고 칭찬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안동권문은 뭉쳐서 강한 힘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사가 끝나자 백명연 3인조 밴드는 색소폰을 연주, 은은한 곡이 울려 퍼졌으며 종원들은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는 가운데 권재주 고문과 권택기 전 국회의원외 건배제를 하여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권인택 회장은 32인치 TV 1대를 기증하는 등 종원 30여 명이 많은 상품을 경품용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회기예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면서 즐거운 경로잔치를 즐겼는데 해산할 때는 주최 측이 마련한 타일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이날 안동권씨 대종회 권해옥 회장, 안동권씨 안동종친회 권숙동 회장, 전국파조회장단협의회 권인택 회장, 안동권씨정조공파 청장년회에서 각각 축하 화환을 보냈다.
<보도부장 권영진>

무술면 태사묘 추향대제 봉행



태사묘우 앞에서 참제원들이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회장. 장숙진)가 주관하는 무술면(戊戌年) 태사묘(太師廟) 추향대제(秋享大祭)가 9월 22일 오전 10시 안동시 태사묘길(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자(贊者)는 김정동(金定東)씨가 각각 담당하였다.

추향대제 날 비가 그치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면서 현관(獻官)은 물론, 축관(祝官)과 도포(道袍)를 입은 참제원들은 2시간에 걸친 제례(祭禮)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봉행(奉行)하였다. 추향대제를 마친 현관, 축관, 찬자, 참제원들은 송보당(崇報堂)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 후 음복례(飮福禮)를 마치고 당회보고(堂會報告)를 하였다. 태사묘관리위원회 권혁조 사무국장의 사회로 회순에 따라 진행된 보고에서 김영진 도유사(都宥司)는 인사말을 통해 "어제가

지 비가 왔으나 추향대제 때 비가 오지 않을거라 했는데 오늘 비가 오지 않아 삼성(三姓)의 많은 참제원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권오탁 아현관도 인사말에서 "삼성씨(三姓氏)가 모여 제사를 올리는 것은 좋은 전통이며 앞으로 참제원들이 더 많이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숙진 태사묘관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선조님들이 이룩하신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곧 이어 권혁조 사무국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6월 1일 국립안동대 사학과 학생 42명이 태사묘를 견학하였으며 7월 26일 태사묘 송보당 배수공사가 준공되는 등 23개 항(項)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안동과학대학교 차이밍(蔡銘, 중국 서안 출신)과 팜각택(베트남 하이성 출신) 등 대학생이 안동의 전통문화를 배우기 위해 태사묘에 와서 제사(祭式) 나르는 법, 절하는 법 등 여러 가지 추향대에 따른 제례의식을 배우고 심부름도 열심히 하였다.

추향대제를 마친 참제원들은 송보당(崇報堂)과 동제(東齋), 서제(西齋)에 나누어 앉아 회기예애한 분위기 속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진>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창(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동부지점〉	〈강원지점〉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물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

7명의 경력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심김이(淸州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공중임인 청주로
CHEONGJU LAW

대표변호사 권태호

- 안동권씨 추밀공파 33세손
- 안동권씨 대종원 부총재(현)
- 안동권씨 충청북도 종친회장(현)
- 춘천지검장/대전고검차장검사
- 청주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
- 서울동부/부산/광주지검 부장검사
- 서울/대구/부산/광주지검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검사
- 인사(초대)/충주지검장

구성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유재홍	변호사	박종일
대표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제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산남동657) 인텔변호사빌딩 7F(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EL. 043-290-4000(대표전화) FAX.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 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공증/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